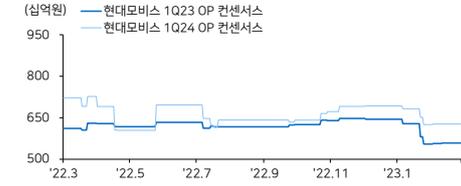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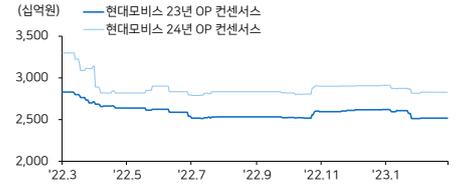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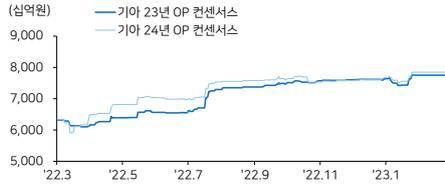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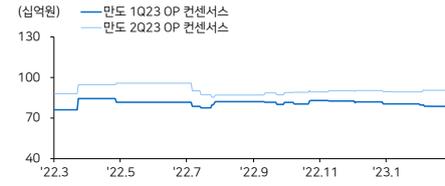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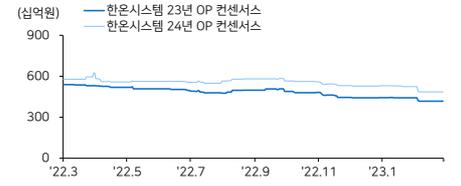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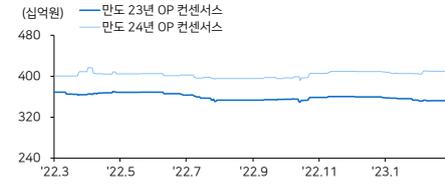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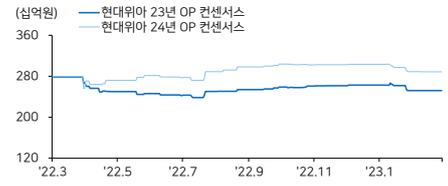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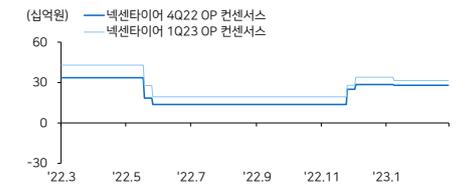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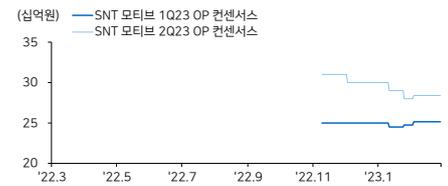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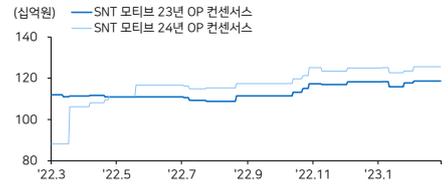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가격 앞에 장사 없네... 잘 나가던 현대차 '비상등' 켜졌다 (한국경제)

22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지난달 유럽 판매량은 1만9249대로 전년 동월보다 49.7% 급증한 반면, 현대차·기아의 같은 달 합산 전기차 판매는 9315대로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 가격 인하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분석.

<https://bit.ly/40kZwHy>

*중국 이제 재미없네... 자동차업계 애타워 인도로 (한국경제TV)

자동차업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업계들이 애타워 인도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 최근 소득 증가와 함께 자동차 구매 패턴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진출이 잇따르는 것으로 추정.

<https://bit.ly/3Ty6ImR>

U.S. Treasury to release EV battery sourcing rules next week (Reuters)

미 재무부는 다음주 IRA법안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배터리 소싱 요건을 발표할 것. 글로벌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들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자격을 위한 상세 지침을 기다리는 중.

<https://reut.rs/3LJLHO8>

Volkswagen Group to build four new EVs and batteries in Spain, including upcoming ID.2 (electrek)

폭스바겐은 스페인 공장에서 향후 출시될 ID.2를 포함, 4종의 EV를 생산할 계획. 폭스바겐은 스페인에서의 생산 확장을 준비 중이며, '26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배터리 기기팩토리는 발렌시아 지역에 설립 예정.

<https://bit.ly/3wZ0ZX4>

전기차 대세 앞지르며 부품 새로 만들려면 3년은 적자...울면서 남품 (뉴스1)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사들이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지만, 새로운 부품을 만들기 위해 설비를 새로 들여야 하는 등 시설투자비용이 상당해 수익을 내기까지 수 년이 소요.

<https://bit.ly/3ixXivM>

중국 자동차 시장 '천바람'... 질주하던 BYD도 조업 단축 (연합뉴스)

비야디가 최근 자사 최대 공장인 시안 공장의 근무 체제를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하루 8시간만 근무하도록 조정해 가동 시간을 줄임. 선전 공장 역시 하루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해 조업을 단축.

<https://bit.ly/409j5mk>

BYD partners with NVIDIA for mainstream SDV built on NVIDIA DRIVE (Green Car Congress)

BYD는 엔비디아와 협력, Orin 컴퓨터 플랫폼의 적용을 더욱 많은 모델에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 BYD는 Orin 이외에도, 올 초 GeForce NOW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차량내에서 제공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을 발표.

<https://bit.ly/42BUNmK>

Albemarle to build \$1.3 bln lithium plant in South Carolina (Reuters)

리튬 생산업체 앨버말은 지난 수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체스터 카운티를 13억달러 규모 리튬정제공장 부지로 선정. 매년 5만톤, 2.4만대 BEV를 위한 리튬을 생산할 예정.

<https://reut.rs/3lwTOU7>